



##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 마음관념의 틀을 깨고 싶습니다

문) 일체가 고정됨이 없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관념화가 돼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관념의 틀을 깰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만약에 박카스 병을 본다 하더라도 박카스 병이라고 관념을 두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신호 등 불빛을 갖다가 저게 그냥 빨강다 파랑다 이렇게 불 뵈고 그렇지, 파랑다 빨강다 이런 관념을 두지 마시라 이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질적인 문제라는 거는 항상 변질되고 부서지고 만질 없애지는 거지 어디 그게 항상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그대로 그냥 여여하다.' 이 소리가 아주 그대로 그냥 묘법이지요.

그런데 이 관념을 부수 버릴 수 없습니다. 모두 그냥 딱치면 딱치는 대로 거기에 그냥 딱 뭉쳐 버리고 딱 뭉쳐 버리고 딱 깔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허공같이 쓰질 못하고 아, 자꾸자꾸 돌아가면서 허공같이 돌아가는데 글썽 왜 거기다가 자꾸 걸립니까. 그게 바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도 그런 말을 했잖습니까. "돈구름과 같으니라." 모든 걸 그렇게, "허망한 거지만 허망한 게 아니니라, 허망한 게 아니면서도 허망한 거니라, 그러니 빨간 거 흰 거, 무슨 푸른 거 이런 거를 고정관념으로 두지 말고 그냥 허공과 같이 봐라."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에요. 그런데 그걸 납득을 못하면 "왜 이걸 박카스 병인데 컵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박카스 병이라고 그래서 박카스인 줄 알지 이 컵이라 그러면 박카스를 알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나 이 박카스 병은 우리가 볼 때 박카스 병이고 컵이지만, 내가 볼 때는 박카스 병도 아니고 컵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나뭇잎이 때문에 허공과 같고, 마음의 허공이다. 나뭇잎이 때문에 바로 '무(無)'라고 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납득을 못하고 자꾸 이 허공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린단 말입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것도 어느 달까지 이 관념 속에서 요렇게 뭉쳐 놓고 전부 여기다 내버렸으면 이것까지도 내버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이 허공이기 때문이죠. 나뭇잎이, 마음이 나뭇잎이고 허공이고, 아, 생명의 실상은 원소 자체에 원소 자체의 문제가 그

냥 거기에서 능력으로서 흐르지만 하고 돌아가는데 그걸 어떤 거를 집어서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고 하고 나뭇잎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뭇잎이 때문에 허공과 같다. 나뭇잎이 때문에 고정된 관념으로써 '이건 박카스 병이지.' 요렇게 관념을 두지 마라 이겁니다. 박카스 병이면 박카스 병이고, 이것도 지나가면 고만이에요. 지나가면 고만이지 이거를 또 그냥 죽도록 생각할 게 없다 이 소립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게 오늘 생각은 안 하고 어저께 생각만 그냥 죽도록 생각할 겁니까. 그러니깐 사람이라는 게 이 고를 먼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육도윤회에 걸려서, 항상 걸려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인은 어저께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걸 걱정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대로 일단 그렇게 했으면 그냥 내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버릴 줄 못하고 꼭 쥐고 있으면 그 관념 속에서 그건 그냥, 이렇게 좀 지혜 있게 탁 넘혀서 다시 돌아오게끔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둥바둥하던 것도 놔 버려라. 놓으면 살아요. 탁 놔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놔 버리는 힘이, 그것이 허공과 같은 뿌리 없는 기둥이 그걸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는데 그놈의 걸 그냥 탁 내 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그 허공의 기둥이 그냥 그냥 돌아

가고 빛이 그냥 활활 비치는데 아, 이놈의 거는 그냥 딱 붙잡고 있으니 이게 어디까지나 마음의 고정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고정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습이 어느 땐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고정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천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실천이 문제다 이겁니다.

절에 가서 법문도 열심히 듣는데...

문) 불법을 공부하고자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법문도 열심히 듣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체험도

한 번 못해 보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공부하는 열심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답) 여러분이 수차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공부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듣기만 하고 걸으려 사랑적으로 감응만 돼서 다녀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듣고만 그대로 다니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보람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될 합니까. 여러분도 사회에서 살면서 일한답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차비만 버리고 다 버리고선 그냥, 돈도 벌지 못하고 그냥 허탕 친다면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항상 새겨서 굴려 놓고, 감사하게 놓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모든 하나 하나 움직여가는 것이 다 나와 더불어 상대와 나와 둘이 아니게 항상 그렇게, 주인공에서 모든 일체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만 듣고 '아, 그러려니.' 하고 내가 부딪쳐 보지 않고 내가 아파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저 느끼지 못해요. 남이 저렇게 아프다 하면은 '아, 그거 그렇게 아프려니.' 이렇게 하지, 자기가 경험해 보는 것만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감을 해야지, 자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또 혼란도 오기도 하고, 가난도 들기도 하고 우환도 들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파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되는 노릇이 없이 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가지각색으로 지금 사람이 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내가 항상 주처에다 맡겨놔야 이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청수에서 하는 것이지, 청수에서 대뇌를 속달로 오관을 통해서 모든 거 하는 거지, 나는 물건이에요. 물건. 청수에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물건이 나온 거예요. 이 물건은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청수라는 그 자체의 불성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본래 죽지 않을 때문에 산다 죽는다는 언어가 붙질 않아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성과 불성과 둘이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와 저 지구와 둘인가? 둘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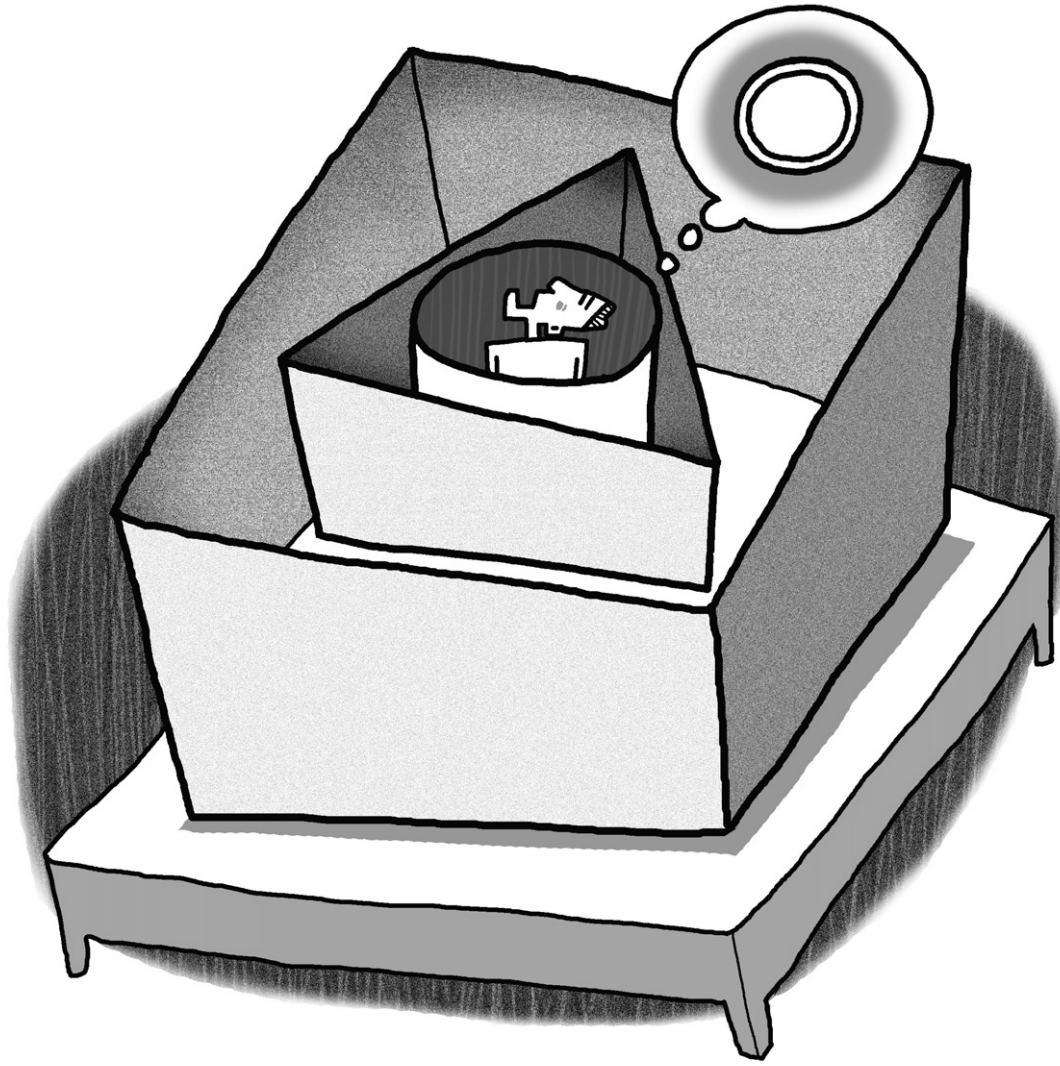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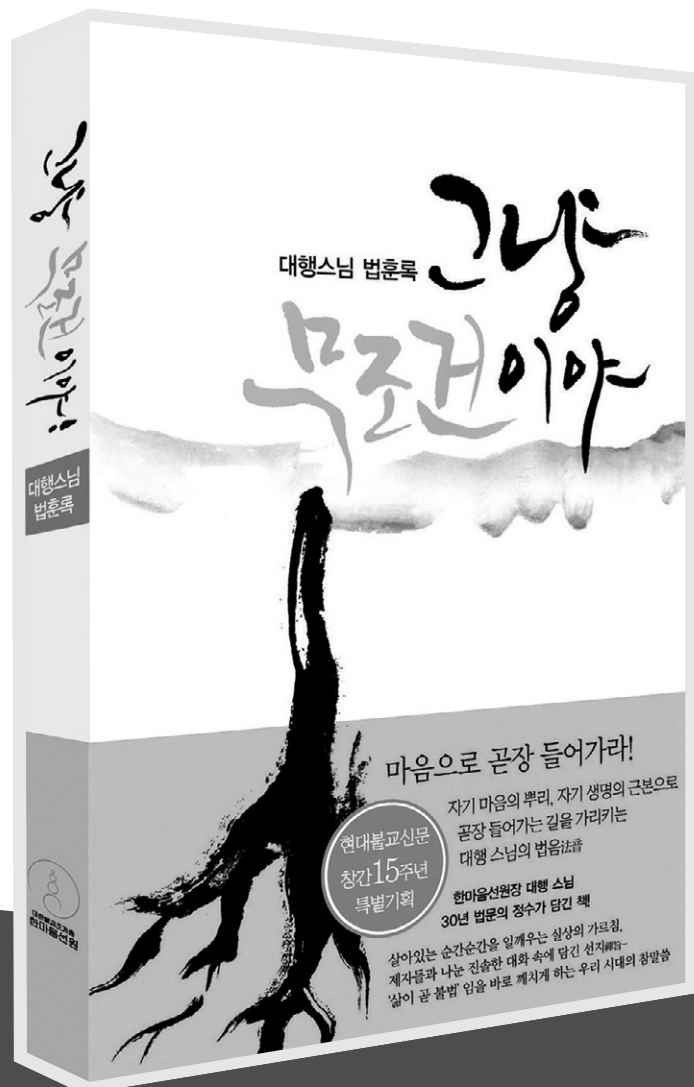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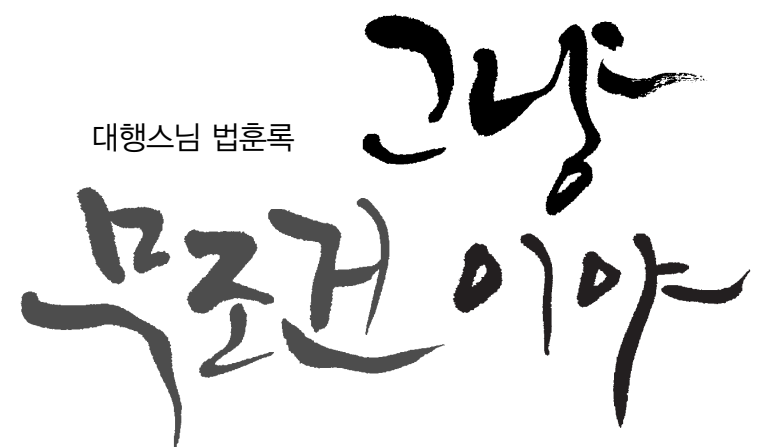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항상 주처에다 맡겨나라

29면에서 계속

죠? 지구 속에 더불어 같이 있어오. 그렇기 때문에 내 집도 집이요, 지구도 집이라 이거야. 그렇다면 모든 걸 감사하게 놓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 믿고, 두 번째 믿었으면 거기다가 맡겨라. 맡겨나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라. 안된 일이 생기면 바로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일이나 거기에서 맡겨라. 그리고 또 믿었으면 물러서지 말아라. 의정이 나면 의정이 나는 대로 거기다 놔라. 놓고 또 의정이 나면 또 놔라. 의정이 났을 때 또 의정이 생기면 그냥 믿어 주었던 거는 놔라. 모든 걸 놓고 돌아간다. 모든 걸 놓고 돌아갈 때 보람이 돼서 완전히 내가 탄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놓고 또 쥐고 그런 게 없어오. 체험만 하고 돌아가면서 또 보람을 하는 거죠.

처음에 놓는 보람을 하면은 몽땅 차츰차츰 다 놔지고 다시 또 보람을 할 때는 체험하고 보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놓아 나가면, 두 자리가 아니게끔, 두 말이 아니게끔, 두 생명이 아니게끔, 두 체가 아니게끔 이렇게, 두 아픔이 아니게끔, 슬프고 아주 기쁘고 이런 것이 놓아 나가면, 이런 것을 한데 합친 한 방울의 물처럼, 한 방울의 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천차만별로 하고많은 게 이 물이라면, 그 피라면 바로 그것이 놓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들었으면 한번 새겨서 이 머리로서 이해가 됐으면 딱 청수로 놔 버려야 합니다. 주인공에 다 놔 버리세요. 그것도 믿음직하게 믿으니까 놓는 거야 믿지도 않고 그냥 '에이, 뭘 대로 돼라.' 그리고 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놓는 거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해 해서 앞으로 좀더 발달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괜히 차비만 들고와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 선·약의 인연에 대해서

**문** 살다 보면 선한 인연도 만나고 악한 인연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인연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답**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시오. 공부를 하시오.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시오. 바로 안에서 밝힌다면 무엇이 부족하리까." 하고 말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인연과 선의 인연, 이런 것도 붙지 않으면 여러분이 항상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 등등이 모두가 여러분이 해 놓고 받는 것이지, 누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 차원에서 고 차원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악의 인연과 선의 인연을 다 놓고 맡기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리를 몰라서 해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우리 자식은 이렇게 이런 원수덩어리가 태어나 가지고..." 이러거든요. 원수덩어리는 원수덩어리를 만들어 놔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는지 그걸 모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게 거짓으로 알진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진실된 인생 속에서 지금 허영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살지만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어떤 집에서 강아지를 하나 얻어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참 착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언제나 밥을 쥐고 그 물에다 형형그르르하

또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 개가 탁 나타나더니 자꾸 멍멍 짖으면서 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바지 자락을 쥐고선 늘어지고는 놓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부인의 꿈에는 와서 손가락을 물더랍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아휴! 너 어디 갔다 왔니?" 하고선 이렇하니까 이 손가락을 물더랍니다. 그게 태몽이 돼 가지고 어린애 낳았는데 아주 장골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항상 마음을 인의롭게 쓰고 착하게 쓰고 항상 내 몸을 바로 그 몸으로서의 그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항상

로써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장묘제도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게 되는 커다란 의식전환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화장의 타당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와 영탑에 모시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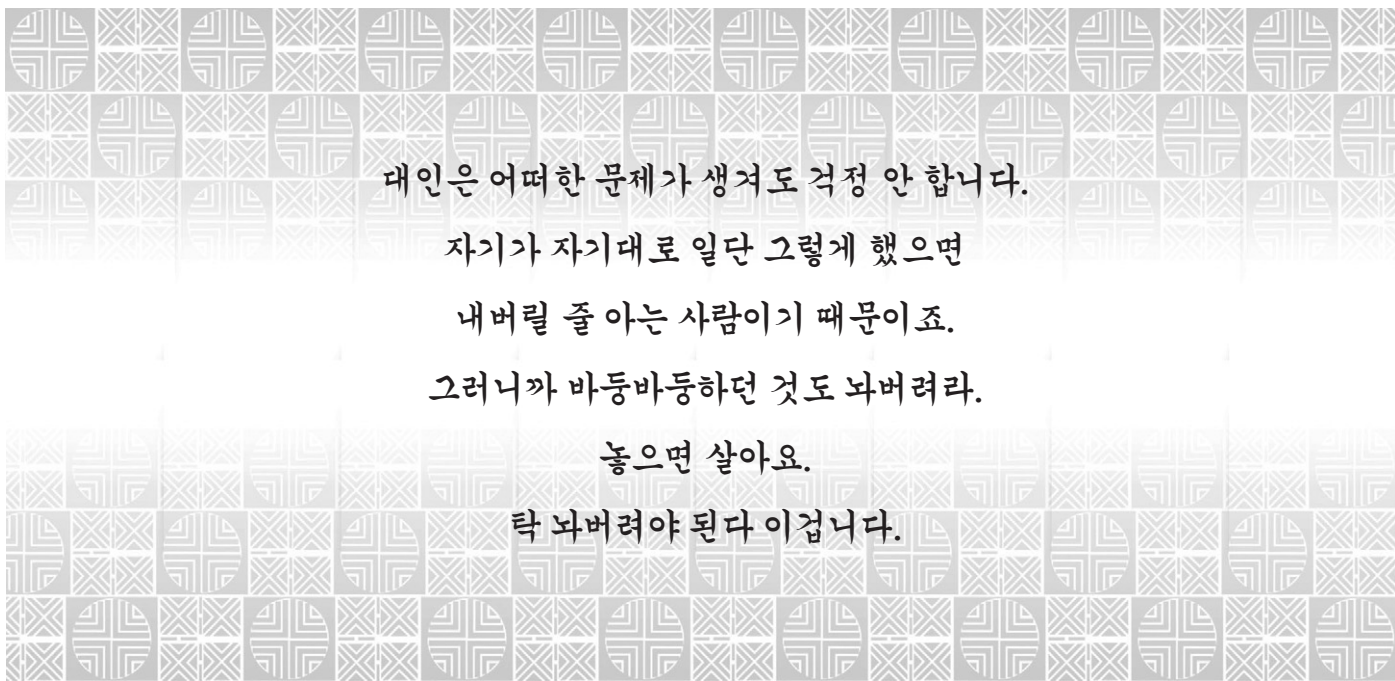
**답** 우리가 예전에 큰 사찰에서 스님네들이 열반하시면은 꼭 화장을 했습니다. 다비식을 했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살아서도 공해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착을 하고 만약에 땅에다 묻는다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죽는다면 삼촌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집

리죠. 그러니까는 짐승이 사람으로 되기가 참 어려운건데 그렇게 산소에 매달리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납골당이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모셔 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에 모시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것은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또 탑도 다르단 말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영령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어쩔든지 '내 공부할 수 있는 거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거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전부 자유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기 하시면 또 같이 모이고 또 자불가리 모이면은 자불가리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는 장소인 말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의 탑들을 모셔 놓는 데는, 그러나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예하다가 그냥 탑으로 모신다 하더라도 그건 사찰에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몰려가서 영불소리 듣고 그리고 고선하는 거죠. 모두 그렇죠.

이게 다른 것이 한두 건이 아니예요. 이게 다른 것이 영원히 세세생생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산다. 이 마음공부 하면서 탑에 모시게 되면 항상 마음공부 하는 분들도 이렇게 들로 영령과 들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밥을 먹어도 그 부모와 같이 먹는 거와 같은 얘기죠. 그 뒤집기 같이 하니까 함이 없이 하는 거다. 함이 없이 하되 부모가 자식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지 자식이 안되라고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서린 마음이 한마음으로, 공심으로 한다. 공심으로 산다. 그래서 공생이면서, 공생이다 하는 건 종자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공생 공심 공체 공공 공식으로 산다. 이 모두가 이렇게 탑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때로는 탑에 이렇게 모시려고 한다면 영령이 이런 공부를 안 했어도 본래에 아주 착하신 분, 그런 분들은 그냥 활활 벗고 떠나세요. 떠나셔도 거기에 근거지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무슨 공부한다거나 이런다면은 같이들 모이죠. 이렇게 하는 도리다, 이런 도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납골당, 이렇게 될 땅 놓고 이러는 것도 이게 이 마음공부에서 벌써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모습이 공했다면은 걸 알고 이렇게 모두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벗어 버릴 수 있구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거기에 있으면 영령들이 때에 따라는 집으로 들고, 이걸 말로 어떻게 하리까. 쪼끔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 땅에 모시는 조상님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문제죠. 그래서 땅에 모셔 놓고 거기에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서 놓고 참 이 공부의 도리를 같이 한자리에서 합시다 하고선 이렇게 영원하고선 오시면은 그렇게 좋아하시고들 그렇게 좋지요. 어느 거든지 다 종자가 있습니다. 종자가 천차만별이지만 그 종자가 다 있어서 거리가리 들 모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금강과 같다 이런 겁니다.



라인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걱정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대로 일단 그렇게 했으면

내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등바등하던 것도 놔버려라.

놓으면 살아요.

탁 놔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게 그냥 뜨물처럼 주지를 않고 오묘조묘하게 해서 잘 먹고 이러니까 강아지가 커서 개가 돼도 참 그 은혜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로 따진다면은 '엄마' 소리는 못해도 그 엄마라고 항상 속으로다가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큰 나무덩이를, 장작을 패다가 고만 장작개비가 가서는 그 머리를 쳐서 그냥 죽사를 했던 말입니다. 개가, 죽사를 하나까는 애통지통 하는데 이것을 모두 동네에서 잡아먹겠다고 하는 것을 내 집에서 키운 거 절대로 남한테 잡아먹히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고 뒷동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걸 잘 물어 주고선 "아이구! 우리가 너를 죽였구나." 하곤 그냥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그라지다 보니까 인제 이태가 걸렸답니다.

그랬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몸을 이렇게 벗겨 주고 무명을 벗겨 주고, 그 인정으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인정으로 인하고 그 자비로 인해서 내가 이 옷을 벗게 됐노라고 하면서 꿈에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악한 인연을 짓지 않고 선한 인연도,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살아가는 반면에 스스로서 언제나 질서와 계율을 지키면서, 스스로서 지혜를 넓혀 가면서 그러한 악의 인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의 인연으로서 주고받는 불빛처럼 항상 밝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뭐 하나도 나잡지 않게 보지 마시고, 또 아무리 악한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탄압하고 미워하지 말고, '아하, 이것도 바로 내 인연에 따라서 내 탓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꼭 돌려서 거기에 맡겨 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살던 습의 종문서를 모두 태워 버리는 길입니다.

### 영탑과 납골당의 차이

**문** 큰스님의 뜻에 따라 영탑공원을 조성함으

에 하나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고 하나는 산소에 갑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는 데도 그 영령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먹다 입는다 산다 애착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애착에 잡혀서 영 영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령들이 그래서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고생하는 거와 고생이라고 하고 고생하는 거와 영령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와 같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떡하든지 더 살 양으로 무슨 개구리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렇게 사는 데에 접하게 되죠. 모르니까요. 눈이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잘 쓰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무의 법 의 법을 동시에 둘 아니게 알면은 그게 아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니까 그냥 집착을 했던 그 뜻으로만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짐승으로 살면서 또 그 속에 잡혀서 사람으로 살던 그거를 잊어버리고 짐승으로 습이 돼 버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하**

##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터뜨리면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 사찰화재보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패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불교수행 건강 상담

### 숨결소리 카운슬링

절수행 700만배, 염불 1억번, 금강경 11만번 참선, 위빠사나, 티벳 밀교 요가수행한 직권 에너지로 핵심을 꿰뚫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절, 염불, 독경, 주례, 노래, 등산, 수영, 사우나 한술씩 때 어깨가슴으로 들숨쉬는 역호흡은 병률행의 원인

단전에 회두, 배일어남사라짐, 코들숨날숨 수승 의식적으로 하면 상기력 확률 99%

불행한 어문 많으면 자신의 예고구 수행 질투한다.

병의 원인, 맘 깨닫지 못하면 100% 재발

상기력, 냉병, 핫병,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병명 없고 의사도 모르는 병, 해독다이어트

천도재, 49재, 구병서식, 조상타령, 귀신타령, 팔자타령, 돈타령, 절대 하지 않음

◎ 장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http://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